

#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 -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을 중심으로 -

김 정 민(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유 안 진(서울대학교 교수) ·

이 점 숙(서울대학교 강사)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무엇보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많은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의 이혼은 우울,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증상들이 부모의 이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 문제는 여러 측면의 보호요인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적응능력과 관련되는 특성인 탄력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의 이혼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외로움, 부모(양육/비양육)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을 조사하였다. 총 155명의 이혼가정 청소년 중 결측치를 제외한 109명(남 40명, 여 69명/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9명)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 성별, 이혼 후 경과시간, 비양육부모와의 접촉빈도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하여 학년 이외의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년, 부모(양육/비양육)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년, 비양육 부모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셋째, 학년, 부모(양육/비양육)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년, 비양육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애착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는 달리 탄력성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모두 비양육 부모에 대한 애착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우울의 경우, 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이 증명되었다. 이와 달리 외로움의 경우,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